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5일(금) 총 4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보훈과	담당자	• 보훈지원팀장 안계환 ☎440-2971 • 담당자 안준열 ☎440-2972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한국전쟁 71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 박 시장, 유공자 표창 대상자에게 친서·참전유공자에게 문자 송부 -
- 시민 안전을 위해 기념식 생략, 최소 인원만 6·25참전 전적비 참배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아 박남춘 시장, 인천지부 보훈단체장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수봉공원 6.25참전 인천지구 전적비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참전유공자, 보훈회원 등 90여명을 초청해 최소 규모로 기념식을 개최코자 했으나,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가 추진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념식을 대신해 박남춘 시장은 나라를 위해 위국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유공자분들을 추모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인천지부 14개 보훈단체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현숙

인천보훈지청장,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과 함께 참배를 드렸다.

또한, 5명의 유공자 표창(시장상) 대상자에게 직접 표창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대신해 표창장 전수(전수자 보훈단체) 시 친서를 함께 전달해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올해는 인천지부 6.25 참전자회 회원 2,581명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그 어느해 보다 의미가 남달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 6.25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붙임> 문자메시지

※ 관련 사진은 행사(8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6.25전쟁 제71주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시장님 위로 메시지

6.25.(금) / 문자 발송

대한민국과 인천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 유공자회 회원 여러분,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6.25전쟁 제71주년인 올해, 참전유공자분들께 직접 인사드려야하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기념식을 갖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늘 평화롭기만 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과 위기가 없는 역사도 없습니다. 단지, 나라가 어려울 때 희생하신 선열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귀한 피가 우리 역사의 혈맥에 흐르고, 그 뜨거운 충성심이 대한민국의 정신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리고 그 후손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인천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든 애국과 헌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유공자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점차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